갈길 먼 여성 경제활동 남·녀 고용률 격차 20.4%p

통계청·여가부,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비중,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의 고용률, 30대 감소 후 40대 증가… M자형 모양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이 남성대비 여성 고용률은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남성보다 여전히 높았다.

2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50.3%)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남성 고용률은 71.2%로 전년과 동일했다.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3년 24.7%포인트에서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난해 20.4%포인트까지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881만8000명이며 이중 정규직 근로자는 518만6000명으로 58.8%를 차지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으로 비중은 41.2%였다. 이는 남성(294만6000명, 26.3%)보다 68만6000명(14.9%포인트)이나 더 많은 규모다.

여성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0~59세가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21.8%), 40~49세(21.2%) 등의 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근로자 구성비의 남녀 격차는 3년째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52.4%로 집계됨에 따라 남성(25.8%)보다 26.6%포인트 더 높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90만2000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52.4%를 차지했다. 남성은 76만1000명으로 25.8%를 차지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구성비의 남녀 격차는 26.6%포인트로 2015년(22.1%포인트)부터 3년째 확대됐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평균 근속년수는 4.7년, 월근로시간은 173시간, 월평균 임금은 22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은 7.2년, 185.4시간, 34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근속년수는 2.5년, 월근로시간은 12.4시간, 월평균 임금은 11만2000원 적었다.

한편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한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모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의 고용률은 40대 후반이 69.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20대 후반(69.6%), 50대 전반(66.3%) 등의 순이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이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19.4%) '서비스 종사자'(16.8%) 등의 순을 기록했다.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판매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제53회 새농민像 본상에 순정축협 조합원 이상기·심옥순 부부, 회현농협 조합원 김준환·안경자 부부가 선정되어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 새농민像 본상 2부부 배출 쾌거

순정축협(이상기·심옥순)·회현농협(김준환·안경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수여하는 제53회 새농민像 본상에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 조합원 이상기·심옥순 부부, 회현농협(조합장직무대행 곽병호) 조합원 김준환·안경자 부부가 선정되어 2일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후보자 이상기·심옥순 부부는 순창군 복흥면에서 '성실함으로 이뤄낸 선진축산'을 모토로 믿음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7년간 꾸준히 한우사육 외길을 걸어 왔고 5년 연속 국가명품인증에 빛나는 전북 광역브랜드 참예우의 대표농가로 현재 한우 600여두를 사육, 우수한 혈통을 기반으로 고급육 생산과 무항생제·HACCP인증, 농협중앙회 축종별 경영모델농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고 축산농가의 모범사례로 꼽혀 새농민像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김준환·안경자 부부는 군산시 회현면에서 '우직함으로 성공이룬 풍성농장'을 모토로 풍성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3년간 농업(수도작) 및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 농법과 농가 소득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도 농가로서 연간 76만8천L의 원유 생산과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는 등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새농민像 본상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 농업인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새농민像 수상자 중에서 전국 20부부를 엄격 선발하여 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우정청, '맞춤형 청첩장·초대장·축하카드' 서비스

전북지방우정청 청장은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청첩장, 초대장, 축하카드'를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 맞춤형카드는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눈에띄는 디자인, 어른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컨셉, 고객맞춤 청첩장으로 신청부터 배달, 답례 인사장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우체국에서 대신 처리, 결혼준비에 바쁜 예비부부의 부담을 줄였다.

축하카드 신청은 전국 우체국 어느 곳이든 가능하며,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무료로 모바일 초대장을 보낼 수 있고 행사 후 편리하게 답례 인사장까지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나만의 웨딩, 청첩, 초대장, 이벤트'는 카드이용고객 500명을 추첨, 문화상품권, 나만의 우표 등 푸짐한 경품이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 상품이용후기 댓글만 달아도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우정청 김성칠 청장은 "이번 우편상품으로 따뜻한 마음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산물 판로개척 발 벗고 나서

구리공판장 경매사·중도매인 등 바이어 대상 마케팅활동 전개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도내 주요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2일 구리공판장(장장 이동영) 및 농협하나로유통 농산사업부(부장 양시춘)을 방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농산물 주요 공급처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공판장을 집중 공략, 기존 거래처인 농협하나로유통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농협과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전주,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정읍단풍미인, 부안천년의솜씨, 김제지평선)이 연합, 현장으로 찾아가 경매사, 중도매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 농산물을 홍보, 향후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리공판장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 및 경기 동부권, 강원도까지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 중도매인들은 대형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가수의매매나 최저경락가격보장제 등을 통한다면 안정적인 농가수취가가 예상되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영 구리공판장 장장은 "전북 농산물이 충분한 구색을 갖추고 있고, 행정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APC 등 각종 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구리공판장에서도 적정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우정청, 정년·명예퇴임식 가져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달 29일 우정청 10층 회의실에서 김제우체국 국장 등 10여명의 퇴직자와 우정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퇴직자에게는 청장공로패 및 후배들의 마음을 담은 롤링페이퍼와 캐리커처를 수여했다. 이어 지난 공직생활을 추억하는 동영상 시청, 퇴직선배와의 대화 그리고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지방우정청 김성칠 청장은 "오랜 시간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발전과 우체국의 위상정립에 헌신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퇴임후에도 우체국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현황 점검·태풍 대비 만전

전북농협은 2일 8시 재해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제7호 태풍 쁘라빠룬 북상에 따른 농업인 안내 및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전북농협 유재도본부장은 오석원 익산시지부장, 이동호 망성농협조합장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호박 재배 농가를 찾아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로, 재해취약지구를 점검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26일부터 전북지역에는 최고 군산시에 363.7mm, 최저 무주군에 201.5mm 등 많은 비가 내려 1,364농가에 농작물 1,839ha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우정청, 부모님 용돈 배달 서비스 시행

전북지방우정청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 등,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 '용돈 배달 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예금 가입자인 고객이 현금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달할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부모님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용돈 배달 서비스'는 지난 3월 시행한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가 '우체국 계좌명의자'에게만 배달했던 것과는 달리 수취대상을 확대한 서비스이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우체국 현금배달 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분께 현금배달 직접 해주며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가능하다.

한편,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배달 없이 현금은 예금주 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이다.

전북지방우정청 김성칠 청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매월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을 자택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니즈를 살피고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